



대행 스님

어떠한 문제라도 주인공에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한생각이 중요한 것이므로 법당에 자주 나가되 그렇게 끈질기게 노타거리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구가 기도드리는데 백 일만 돌아다니나요? 그러면 기도드리고 왔을 때는 지구가 멈춰지겠네요? 한날 한시도, 일본일초도 떠나지 않는 자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것을 '끊어뜨리지 않아야지.' 한다면 끊어지는 법이고, 끊어뜨린다 끊어뜨리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대로 여려한 겁니다. 그대 여복하면 여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만 여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여려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여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높은 것도 높고 낮은 것도 높고, 풀포기는 풀포기대로 높고, 높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독존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신만이 높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광대하고 심오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길이 바로 불교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데 율화가 처지면,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만 '어유, 나한테 그래 봐. 뭐 저한테 좋은 일 생기나? 인제 저러다가 큰코다치지!' 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코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식들이든 누구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죽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다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주인공은 돌이 아니에요. 전구는 이렇게 많지만 스위치는 하나이듯이 모두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떻게 돌이겠습니까. 전력을 크게 쓰고 작게 쓸 뿐이지 어떻게 전력이 따로따로 있었습니까.

그와 같이 예나 어른에게 말이나 생각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냥 입력이 됨으로써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용광로에 현쇠들이 모두 들어가서 저절로 재성이 돼서 나오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지켜보고 관한다면, 바로 용광로에다가 한 것들을 다 넣으니까 저절로 재성이 돼서 나오듯 나옵니다. 그냥 넣는 작업만 하면 재성되는 거는 자동적이죠.

아무리 자기한테 약하게 하고 아무리 죽을 것

을,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거기다 맡기고 돌려놓고 지켜보면서 상대에게는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 주고 부드러운 뜻을 가져야 됩니다. 원망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뜻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바로 저 상대가 없을 것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나쁜 상대가 있는 것이니 내 잘못이 아니겠는가?' 하고 돌린다면 바로 환하게 불이 들어오니까 저쪽의 전기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은 서로가 밝아서, 한 사람이 밝게 쓰니까 다른 한 사람마저 밝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이력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구, 내가 그렇게 했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선 후회를 하고 다시금 마음이 밝아져서 돌이 밝고 정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화복해지니 좋고 애고가 없어지니 좋고 병고가 없어지니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이 다 나야야 내 몸이 낫는다'고 한 그 뜻을 한번 새겨 보십시오.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위장 공장, 간장 공장, 척수 공장, 척추 공장, 방광 공장, 콩팥 공장, 심장 공장 할 것 없이 어떤 공장에서든 파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모든 걸 이끌어 가는 내 마음이 한바음으로 다스린다면 일체가 작용을 해 줘요. 그래서 그 모든 중생들이 건강해지고 파위를 일으키지 않으니 중생들이 있는 이 집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밖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 헛되게 떨어뜨리지 말라고 부처

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살아나가는 것이 전부 과학 아닌 것이 없는데 물질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50%밖에 모르는 거지요. 보여 주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하면 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왔으면 집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집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과학이라고 한다면 심성과학이라고 해야 될 일이지 심성을 빼놓고는 과학이라고 뭐고 없다 말입니다.

부처님은 한결같이 '너 나가 따로 없고, 네 국토 내 국토가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길고 짧음이 따로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고 모두가 잘나에 화해서 돌아가니 몰락 놓게

되면 그 도리를 몰락 얻으리라. 버릴 게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오셨는데도 여지껏 상대를 놓고 온통 바깥으로 꼬달립니다.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전부 기복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몸뚱이 돌아가는 도리부터 알고 자기 몸뚱이 속의 중생들부터 제도해서 삼십이승신의 그 도리를, 천백억화신이 내 몸뚱이 속에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부처님의 마음도 기뻐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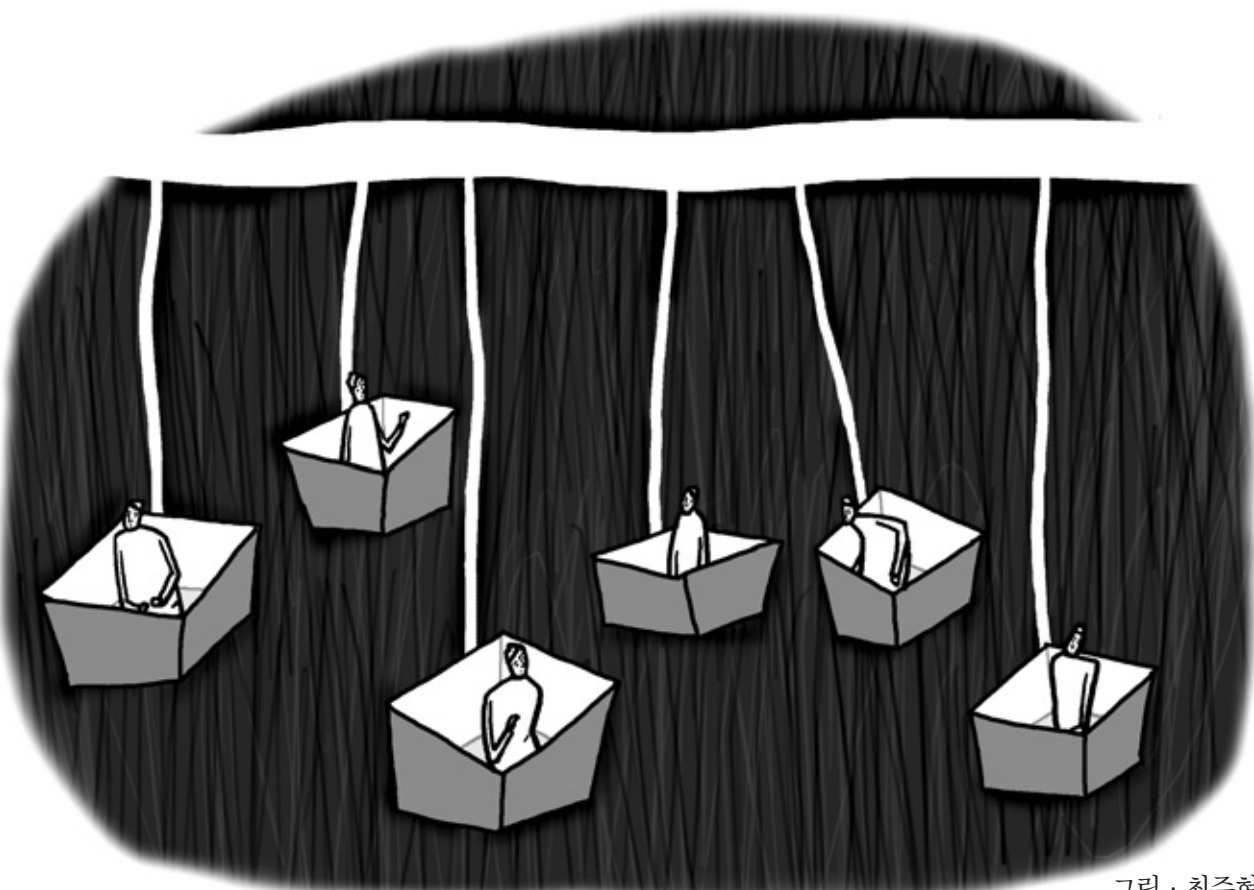
이 세상이 말을 안 하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되죠. 제 몸을 아무리 아꼈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집이 훌륭하고 권세가 좋다 하더라도, 자식 부부가 다 있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자기같이 살라고 가르쳤어요. 모두가 서로 주고받고 먹고 살듯이, 공생 공성 공제 공용 하듯이 모두 서로 가르치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들을 봐도, 바람에 쓸려서 그냥 뿌리가 뽑힐 듯 말 듯해도 그 나무는 바람 부는 대로 삽니다. '물이 파도나, 파도가 물이냐?'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물고기들이 다 물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들도 다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작용이 없으면 무런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물속에는 태양열이 절반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쳐서 모두 굴러 줘야 그 생명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도도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순응치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 양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 신부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공부한다면 한국에서는 왜 스님들이 그렇게 싸우고 치고 박고 그러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화산이 터져서 과학자들이나 인류가 얼마나 발전이 됐느냐? 그와 같이 발전을 시키기 위한 작용이 지 싸움이 아니냐. 너희들 눈이 장님이 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하하하. 그리고 "너희 나라에 있는 케네디 대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을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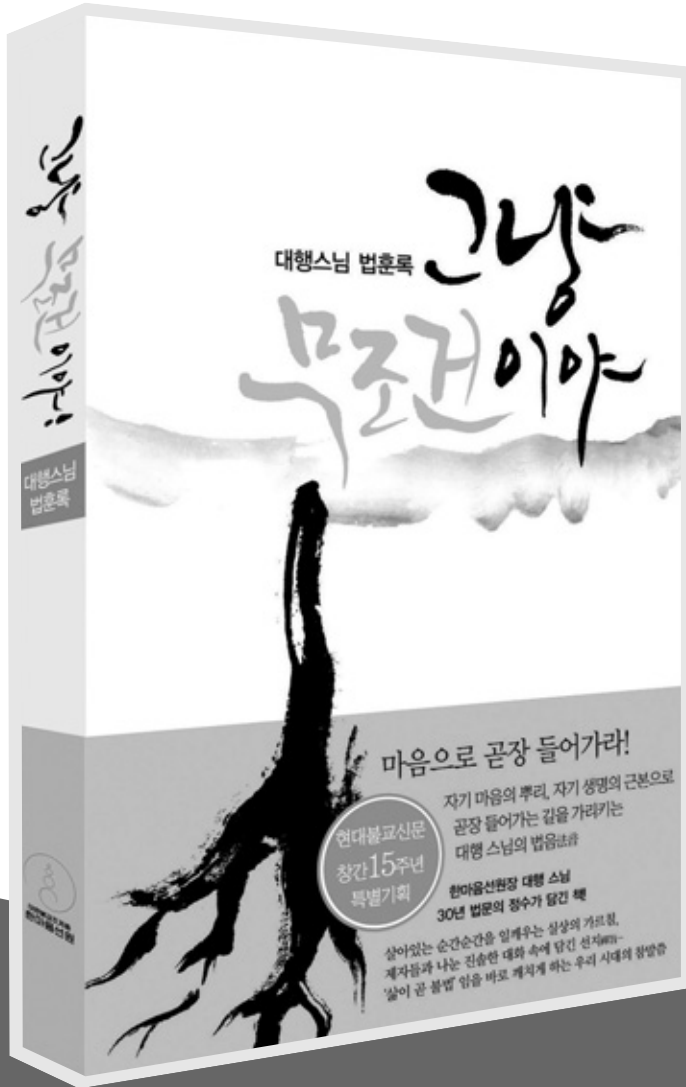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상대를 원망 말고 모든 것 내 탓으로 돌려야

29면에서 계속

동령 묘지에 가 보니까 불을 훨씬 날리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 밤낮없이 불이 나오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도리야. 그것은 더하고 덜함도 없이 항상 밝다는 뜻이야. 당신네들도 그렇게 해 놓고 가면서 그 뜻을 모르느냐? 모든 종교가 불교 주벽에, 한 주벽에 있다." 하고 말씀하셨죠. 거기 가면요, 신부나 목사님 또는 이름 있는 분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림자도. 또 독일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모가 나야 걸릴 텐데 모가 나지 않으니가 걸리지 않습니다. 하하하...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었죠.

하어튼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장하시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수님도 보살이 되려다 말아서 그렇지, 왜 몸뚱이로 그렇게 돌아다녔느냐. 그러나 그 사대가 그냥 못에 박히지 않았느냐. 부처님은 앉아서 천백억화신으로 제도하셨다. 천백억화신만 되겠느냐. 일체 중생이 자기 아님이 하나도 없이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했다면 당시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 즉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했더라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자기 몸뚱이, 자기 집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요.

집이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 진짜 열반인 것이지 그냥 집이 없어지고 죽는 것은 열반이 아니거든요. 네?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구경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즉 나를 죽여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돌이 아니게 더불어 죽어서 또 돌 아닌 도리를 알고, 또 더불어 같이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라 무슨 소용이 있었소마는 여러분과 같이 질서를 지키면서 배우고 나가려면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이름을 지어 놓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열반이지 죽으면 열반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살아서 못한 것을 죽어서 어떻게 하겠소? 더하고 덜함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간에 살면서 속세 따로 부처님 법 따로 생각해서 둘로 보신다면 항상 선은 끊어질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다 돌 아닌 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도 나 아님이 없어서 내 아픔이고 내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평등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뼈 두더기에다가 절을 해 보인 것도 역시 그러한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늙었습니다. 그냥 늙었어. 그러나 여쭙 부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모습이 없다고 해서 삼천 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지 지금은 안 계시다고 하지 마세요.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이요. 부처님은 지금도 계시고 이렇게 만물 만생으로 나투면서 설해 주시면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어튼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맛있게 잡숫고 안 잡숫는 거야 어찌해 볼 수 없는 거니까요. 허허, 그거야 어쩔 수가 없고, 궁급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여): 큰스님, 오늘 이렇게 큰 법문 내려 주시고 일일이 다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회가 광고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제 친지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투정부리는 마음으로 큰스님께 질문드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은, 여든 된 비구니 스님도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미 스님한테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비구니 스님을 어떻게

해 가는 중에 저의 내면을 관찰해 보면 수많은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 있을 때 이런 의식들이 육신이 죽고 난 후에는 업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떤 것이며 불성, 참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요? 궁급해서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생각을 내면 모두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소, 즉 생각을 해내는 그 자체가 영혼입니다. 멧돌로 비유한다면 멧돌 주는 바로 불성이요, 즉 멧돌이 돌아가게 하는 그 자체는 그냥 힘을 내주기나 했지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바로 영혼의 장난입니다. 그러나 영혼과 불성이 다르지 않고 바로 육신까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돌이 아닌 깨달음에 삼라만상의 일체가 다 같이 혼연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보시지 마세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질문자3(남):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이전

관리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전되어 와서 그냥 머리에 배었죠. 지금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틀리지 않고 배우는 사람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그대로라는 걸 백지 한 장 사이인데도 모르고 있지만 그것만 알아채면 이 세상을 그대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그렇게 간단하죠.

그런데 생각들에 쫓겨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아이고, 그렇게 다 놓으라니 다 놓고 어떻게 살니까?" 허허,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걸어들 때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이렇게 걸어 오는데, 그걸 짊어지고 다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게 그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불되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대로 그냥 순응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온통 불되고 만날 걸리는 거죠. 그게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고 나오지 못

불살생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살아 가는 생활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서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식 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그 불살생계에 걸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죠. "손님들이 와서 닭 30마리를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30마리를 잡아서 서른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하고, 만약에 하지 말라고 우긴다면 집안에 큰 싸움이 날테니 스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그걸 살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백지장 하나를 넘지 못해서 모르니 살생이 될 것이고, 백지장을 뚫은 사람은 그것이 살생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생각을 이렇게 해라. 닭의 삶은 네 살이고, 닭의 생명도 네 생명이고, 닭의 마음을 네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 닭의 삶은 약으로 될 것이고 닭 30마리가 그냥 흘랑 네가 돼 버리고 만다. 그러나 30개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30개를 꺼내도 쏘지 않는 도리니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말고도 그냥 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와서 하는 소리가 "어렵듯이 꿈을 꾸니까 닭발이 전부 한데 묶여서 천상으로 올라가요." 자기와 그 닭발이 돌이 아니게 꿈 그냥 자기 몸뚱이로 들어오더니만 자기가 천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왜? 그 도리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소고기 한 점이 걸리는 것이 오백 년, 천 년 만에 한 번 인연이 될까 말까 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백 년도 일 초요 일 초도 오백 년이지, 오백 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 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가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봐도 그 소 두를 내 마음 안에 넣으면 내가 되고 내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소가 되고, 소가 돼서 소 무명을 벗기면 그대로 인도환생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사람들은 연쇄적으로 하(下)의 동물을 먹고 그 하의 무명을 벗기고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생한다고 그것을 넘기지 못해서야 어찌 부처님의 법을 따르다고 하며 그 뜻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생을 한 바도 없고 안한 바도 없는 그 가운데 도리를 갖 것 같으면 아주 무주상 보시죠. 하하하...

* 위 법문은 1992년 11월 1일 국내자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 큰스님이라고 하느냐면서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경전 공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리를 확실히 전해 주지 못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전 모든 사람들이 이 법석에 한자리 하기를 소망합니다. 큰스님의 좋은 법문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이거 봐요. 한번 넓게 생각을 해 봐요. 마음이라는 거는 지구 바깥으로도 벗어날 수 있어요. 몸은 한 몸으로 이렇게 앉았지만은 이 혹성에서도 살고 저 혹성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렇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광대무변해서 무슨 행자승이고 수좌승이고 대승이고 소승이고가 없어요. 이런 것은 이름이 뽀, 원 선법에는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이 같이 돌아가고 지금 같이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영동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리저 말고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돌려봐요.

질문자2(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행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게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불되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가지고 온통 불되고 만날 걸리는 것이지요.

그건 바로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지 못해 자유스럽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백 년이 지난 지금을 흔히 저희들은 말뚝 시대니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저희 중생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멀고 또 사법과 사교가 활개치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정법 만났다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이 정법을 만났고 또 배우고 수행하여 참자유인이 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법을 모르고 사법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분들에겐 스님께서는 어떻게 포교하고 계시며, 그리고 스님을 대신해서 이 법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불교 교육대학 포교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스님: 이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가서 날짜를 물어보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탈이 생긴다.' 이렇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살아오. 그 한 예만 봐도 살아나가는 게 모두 그렇게 관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나가는 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관리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그

해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 주세요. 배우는 사람에게도 '이게 뭐고?' 하지 말고 '네가 너를 끌고 다니니까 그대로 거기다 말고도 그대로 지켜봐라. 못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 굴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고, 잘못으면 감사하게 놓고 거기에서 말겨라. 주인이 그 구멍은 한 구멍밖에 없다.' 하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면서 당신을 끌고 다니는 자체를 주인 삼아서 꼭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깨치게 되어 고삐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듯이 자기 주인이라는 이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서로 100% 작용할 줄 알아야 에너지 바로 자기 자신들이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3(남): 알겠습니다.

질문자4(남): 스님께서 불이(不二)의 법문을 해 주시면서 둘로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짐작은 같지만 평소엔 의심나는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게 가운데

Hanmaum Choir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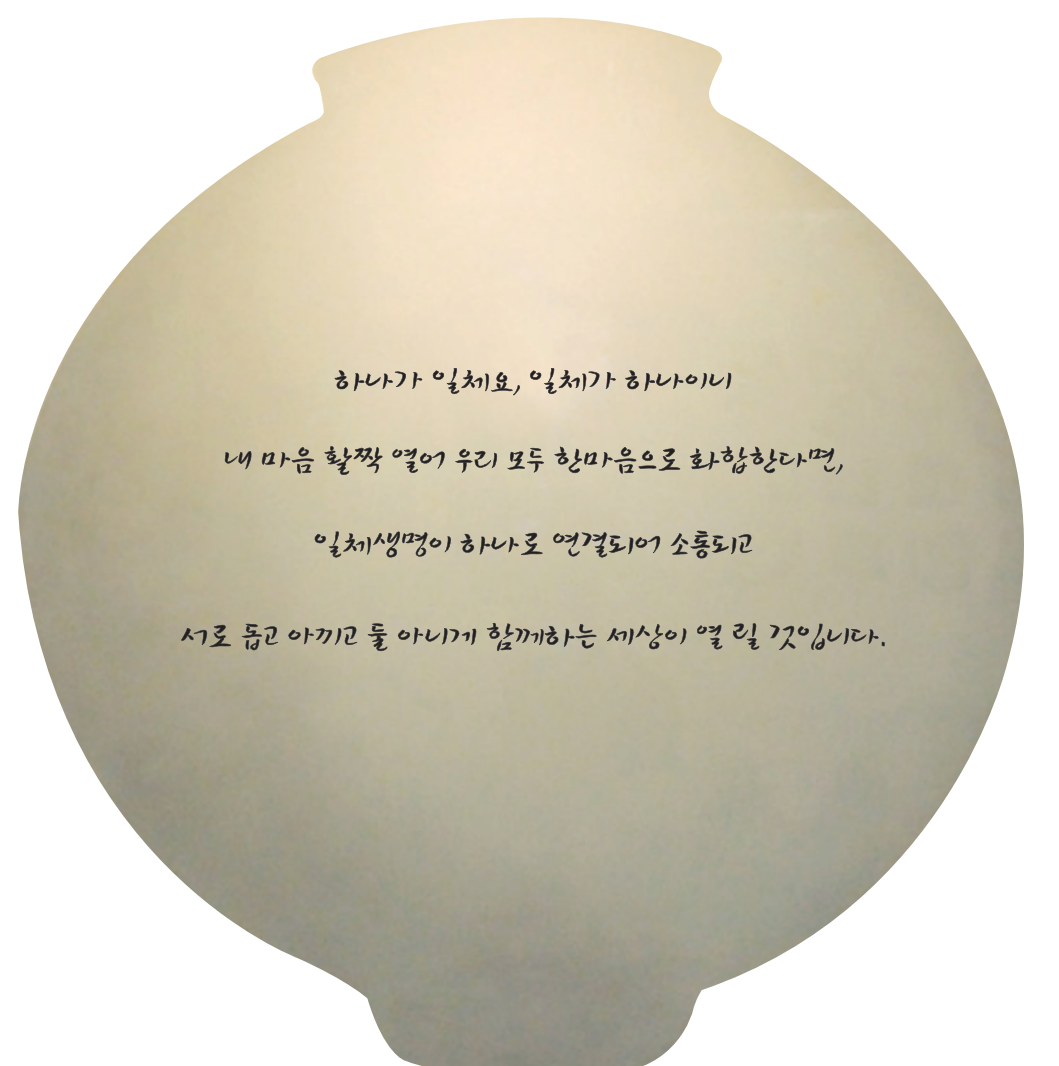
한마음 음악제

- 주 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 일 시 1회 공연 : 2011.11.12(토) 17:00 / 2회 공연 : 2011.11.13(일) 15:00 / 3회 공연 : 2011.11.13(일) 19:00
-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공연 내용 제 1부 (선법가 공연)
 - 한마음선원 스님
 -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 한마음선원 해외지원합창단
- 제 2부 (화합대제전/재능기부 축하공연)
 - 황병기(가야금 명인)
 - 이춘혜(소프라노), 이승묵(테너)
 - 전제덕(하모니카 연주자)
 -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문의 031-470-3100
 후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
 본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동행[(사)더프라미스 지정기탁]과 (사)뷰티플마인드의 나눔사업에 기부됩니다.

더 프라미스는 종교와 문화, 인종과 정치의 다양성을 수렴하고 편견 없고, 차별 없는 나눔을 바탕으로 저개발 국가의 교육사업을 지원합니다. 뷰티플마인드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전 세계의 소외된 이웃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농협 351-0290-8461-33 / 국민 214901-04-197245 [예금주 한마음선원]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하나이니
 내 마음 활짝 열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한다면,
 일체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소통되고
 서로 돕고 아끼고 돌아니게 할끼라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 위와 아래가 따로 만들어지지만, 불가마 속에서 하나가 되는 단행이리, 자신을 텅 비워서 모두를 포용합니다. 나와 나, 남과 북, 나아가 세계를 잇고 싶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 작가 김익중